

## 11월 인성교육 자료

(매주 월요일 아침 시간 활용)

11월 01일

### 신문 읽기 & 뉴스 시청하기

기사 원문: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028/109958222/1>

쪽방촌 이웃에 먹거리를, 조손가정 아동에겐 깨끗한 집을 (동아일보, 2021.10.29.)

해보기) 진정한 봉사란 무엇일까요? 봉사에 의미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東亞日報

2021년 10월 29일  
E07면 (기획)

쪽방촌 이웃에 먹거리를, 조손가정 아동에겐 깨끗한 집을

코리아세븐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지역사회와 손잡고 적극적인 나눔 활동에 나섰다. 지역사회와 공감하고 공생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지역사회의 인연은 8년 전 쪽방촌에서 시작됐다. 2013년 기획적 폭염 당시 동대문 쪽방촌에 생수병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쪽방촌 나눔봉사는 세븐일레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 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쪽방촌 봉사 횟수만 총 40회가 넘는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쪽방촌을 찾는 대면 봉사활동과 기부가 크게 줄었지만 세븐일레븐은 나눔을 더욱 확장했다. 연초 설 명절을 앞두고 남대문, 영등포, 창신동, 돈의동, 서울역 등 서울지역 쪽방상당소 5곳에 총 4000만 원 상당의 가정간편식과 간식을 전달했다. 지난 4월에는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간식키트 1200개를 제공했고 폭염이 내린 7월에는 음료 6000여 개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손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7개 지사 임직원 60여 명이 조

손가정 아동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직접 나섰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전국 조손세대 위탁 가정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교체, 주방수리, 전기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다. 이달 18일 서울 마포구를 시작으로 전국 총 1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100여 가구에 문구류와 간식 등 1000만 원 상당의 물품도 후원할 계획이다.

나라사랑 캠페인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5일 세븐일레븐은 해군 순항훈련전단에 과자, 라면, 음료 등 식료품 1000만 원어치를 전

달했다. 7년째 정기적으로 이뤄진 해군 순항훈련 물품후원은 누적 지원 규모가 1억 원에 달한다. 그 밖에도 전방 군부대 장병들을 위한 물품 지원과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전달, 전역장교 채용, 제대군인 창업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산정 세븐일레븐 사회공헌 담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생도들이 건강하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군 장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leemai@donga.com

2021학년도 남원서진여자고등학교 11월 학생인성교육자료.hwp

1



## 신문 읽기 & 뉴스 시청하기

기사 원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177>

### 위드 코로나에 설레나, 빨강게 물든 부석사

(중앙일보. 2021. 10. 29)

해보기) 위드 코로나 들어는 보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중앙일보**2021년 10월 29일  
01면 (종합)



### 위드 코로나에 설레나, 빨강게 물든 부석사

28일 경북 영주의 불함산 자락에 내려앉은 단풍과 부석사가 가을 햇살과 어우러져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부석사는 고려시대 목조건물인 국보18호 무량수전면 위 건물으로도 유명하다. 한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방안을 오늘(29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 관계기사 4, 5면 손만호 기자

## 신문 읽기 & 뉴스 시청하기

기사 원문: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92430](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92430)

## 소통·공감으로 모두가 함께...금연 문화 확산

(대전일보. 2021.10.29)

해보기) 건강한 생활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illegible]



## 신문 읽기 &amp; 뉴스 시청하기

해맑은 놀이에 덜컥 총 쏘는 흥내 오징어게임 열풍에 학부모 ‘근심’

(대구일보 2021. 10.27)

해보기)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재대로 보는 눈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해 고민해봅시다.

## 大邱日報

# 해맑은 놀이에 덜컥 총 쏘는 흥내 오징어게임 열풍에 학부모 ‘근심’

학교현장 전통놀이 유행 동시에  
각종매체서 폭력성 그대로 노출  
대구교육청, 생활교육 강화 당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 김은희(37·대구) 씨는 놀이터에서 자녀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녀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던 도중 “000번 탈락”이라고 말한 후 총을 쏘는 시늉을 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해당 놀이를) 가르쳐준 적이 없는 데 아이가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나온 장면을 그대로 따라해 놀았다”며 “잘나가는 오징어 게임의 역효과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 열풍이 부는 가운데 대

구지역 학교 및 학부모들의 근심이 늘고 있다.

만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인 오징어게임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지만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지면서 폭력성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지역 내 학교에서 오징어게임을 비롯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등 드라마와 관련된 놀이가 유행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놀이가 폭력적인 놀이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매체를 통해 드라마를 접한 학생들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에서 지면 총으로 쏘는 시늉을 하는 것은 물론 일부는 벌칙으로 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각 학급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오징어게임 관련

지도에 나선 실정이다.

대구시교육청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 25일 폭력적인 영상물 시청 금지 및 폭력적인 행위를 모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생활교육 강화’ 협조공문을 내렸다.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각 학급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오징어게임은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니다’는 지도와 함께 전통놀이에 대한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방과 후 찾는 체육관, 학원 등 사교육 시설에서도 조심하는 분위기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튜브도 보고 친구들과한테 배우는 것 같다. ‘유치원생들도 요즘에는 다 알더라.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수위의 콘텐츠는 아니다. 너무 잔인한데 자녀가 따라하면 어떻게 하나’ 등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구에 있는 한 체육관 B 관장은 “학부모들로부터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관련된 놀이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현 기자 jhshin@idaegu.com

신문 읽기 & 뉴스 시청하기

가을밤

(전북도민일보, 2021.10.29.)

해보기) 가을이 지나고 이제 겨울이 옵니다. 가을을 떠나보내며 시 한 편 읽어보는 건 어떨지요.

## 전북도민일보

2021년 10월 29일  
11면 (오피니언)

### 독자시

## 가을밤 (秋夜)

낙엽 텅군 소리에  
귀뚜라미 밤새 슬퍼 울고  
툇마루 구석진 곳에  
내려앉은 하얀 달빛은  
밤 거미 생명줄을 놓았구나  
툇 앞 솔 나무 가시에 걸린  
초승달은 황금빛 금가락지를 걸고  
코끝에 부서지는 서늘한 바람  
국화 향이 깊은 밤 그윽하다



전 근 표  
시인 /  
전북문인협 회원

### 〈시작노트〉

이제 서늘한 바람 불어오는 가을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혹시나 혹시나 하며 자기방어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가을이 깊어가는 환절기에 감기 걸릴까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고민만 하기 보다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함께 밤 거미의 생명줄, 그리고 솔 나무 가지에 걸린 초승달을 보면서 밤 깊은 가을의 정취를 코끝에 스미는 그윽한 국화 향을 느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가져 보았으면 한다.